

IPO 간담회

글로벌 톱기업 80%가 고객사... “신소재 개발 주력”

정밀화학전문 | 한국바이오젠 |

맞춤형 정밀화학 공급 기술 갖춰
건축·전자·의료 등 적용산업 많아
R&D 확대... 전기차 진출도 준비
주당 공모 희망가 4700~5700원



부태용 한국바이오젠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젠

부태용 한국바이오젠 대표는 “글로벌 우수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세계적인 정밀화학 소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성 실리콘 소재 전문기업인 한국바이오젠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부태용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인 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을 겨냥해 방열 소재, 2차 전지 전해질, 자동차용 접착제 및 실링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바이오젠은 당초 바이오 기업

으로 2001년 3월 설립됐지만 실리콘 소재 개발로 사업을 전환, 현재 바이오 비중은 3%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정밀화학 전문 기업이다. 건축, 전자, 항공, 에너지, 화장품, 의료 바이오, 산업공정,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기능성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현재 실리콘 시장에는 미국의 다우(DOW) 및 독일의 바커(WACKER) 등이 강자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 업체와 경쟁 관계이면서도 이 기업들을 비롯한 글로벌 메이저 톱 5 중 4개사에 제품을 공급해 협력관계로 자리잡고 있다.

이 회사는 각 고객사가 원하는 성질을 구현하도록 분자를 설계하고 이를 합성하는 제조공정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개발 및 생산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기업들과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건축 분야의 실란트 교제, LED 봉지재로 쓰이는 실란 노머, 항공에서 쓰이는 활주재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고층 건축물 등 특수 구조용 소재로 활용되는 실리콘 융합 소재·실리콘 레진, 실리콘 폴리머, 정밀 화학 분야의 중합방지제, 바이오 분야의 합성 아미노산 등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64억 3385만원, 영업이익은 28억 7270만원, 당기순이익은 21억 3006만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14.1%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8.0%, 29.8% 늘었다. 매출 비중은 내수가 65%, 수출이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미국·독일 등에 국한된 데

서 벗어나 최근에는 중국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젠의 총 공모주식수는 178만 4500주다. 신주발행 142만 2000주와 구주매출 36만 2500주로 구성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4700원~5700원이며, 이번 공모에서 신주발행으로 최대 약 81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 신소재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국내외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회사는 오는 17~1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3~24일 일반 청약 받는다. 내달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스마트폰용 특수필름·복합소재 ‘절대 강자’... 베트남에 신공장

스마트폰필름제조 | 세경하이테크 |

‘데코 필름’ 차별화 MDD공법 등
관련 특허 다수 취득 ‘기술력 입증’
폴더블폰 수요 증가로 수혜 기대
주당공모희망가 4.6만~5.2만원



이영민 세경하이테크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경하이테크

스마트폰용 특수필름 및 복합소재 가공기업 세경하이테크가 이르면 이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세경하이테크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7~18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 후 22~23일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희망가는 4만 6000원~5만 2000원으로 총 공

모금액은 밴드 기준 460억~520억원이다. 대표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세경하이테크는 스마트폰용 특수 필름 및 복합소재가공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기능성 모바일 필름·테이프(Mobile Film·Tape), 투명한 접착이 필요한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옵티컬 필름(Optical Film), 스마트폰 후면 디자인에 사용되는 데코 필름(Deco Film) 등이 있다. 제품들은 글로벌 스마트폰 세트 메이커(Set Maker)에 공급하고 있다.

주력 제품인 데코 필름(Deco Film)은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는 MDD 공법을 통해 자유로운 디자인과 색상 구현, 높은 생산력을 갖춰 다품종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디자인 역량과 이를 구현할 잉크 개발 역량도 갖췄다. 회사는 2011년도 설립한 기술연구소에서 잉크 제조 관련 특허 8건, 생산 관련 특허

15건을 취득하며 경쟁사와의 기술력 차이를 벌렸다.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세경하이테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매출액이 2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기준 15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5% 성장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 1024억원, 영업이익 179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7.5%를 기록했다.

세경하이테크는 향후에도 5G, 폴더블폰 등 스마트폰 교체 수요 증가에 예상되고 고급 화장품 용기, 신용카드, 차량 내장 및 액정 등에 데코 필름 등을 사용해 전방 시장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새로 개발하고 있는 3D글라스틱(P

CPMMA)은 합성 소재를 사용해 내구도가 높을 뿐 아니라 데코 필름 제조 역량을 활용해 심미성을 겸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민 세경하이테크 대표이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5G·폴더블 등 수요에 대처하고 소재 산업에 전문성을 둔 베트남 신공장 건립에 투자해 회사의 외형과 내실을 키우겠다”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시너지를 통해 IT 복합소재와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두바이엑스포 용역에 대기업 참여 논란... 코트라 “입찰과정 공정”

거래소, 메릴린치증권에
회원제자금 1.7억 부과“기자회견으로 입장 표명 부적절
중소기업이 협상에 불성실” 반박

KOTRA(코트라)가 16일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하 전시조합)에서 진행한 ‘중기 숨통 죽이는 KOTRA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전시조합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용역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가 전시·연출 및 제작 설치 용역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재입찰할 것을 요구했다.

즉, 중소기업 간 경쟁에 대기업을 참여시켜 1순위였던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문

제 삼았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 2월 두바이엑스포 용역 공모를 통해 1순위는 중소기업인 피앤, 2순위는 현대자동차그룹 이노션, 3순위는 중소기업 시공테크를 선정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

전시조합은 코트라가 이 과정에서 피앤 및 시공테크와의 협상을 일부러 결렬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시물 실제 제작 등 80개 항목의 협상 내용을 요구한 후 두 업체가 15일 만에 이를 지키지 못하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80개 항목의 협상 내용은 이노션에도 공통으로 요구한 사항이며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인데 피앤 등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피앤, 케이비에스엔 컨소시엄은 협

상 결렬 이후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5월 13일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5월 30일 “신청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15일이 짧은 기간은 아니다. 기존 입찰 기간에 준비된 내용을 기술제안서에 요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용역 심사위원들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번 컨소시엄에서 항소해 항고심이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인데 (용역사업에서 탈락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또 판로지원법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예외’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판로지원법에는 실물모형, 전시부스 설치 서비스의 경우 중소기업끼리 경쟁 입찰하도록 했으나 국제엑스포는 성격이 다른 업무라는 것이다. 무

역전시회는 중소기업 경쟁 입찰 항목이지만 입찰가가 10억원을 넘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 두바이엑스포의 경우 용역사업 추정가격이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코트라는 3대 국제행사인 국제엑스포 행사 준비를 대기업에 맡긴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트라는 “기존 여타 응찰자중 중소기업에 전시부문을 도급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사 선정의 자율성과 형평성에 반하며, 협력사(하도급 포함) 구성은 계약 상대방의 전시연출 및 기술협력 필요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특정기업을 하도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동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자금 1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으며,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직접주문접속)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